

주간 통일정세

2018-0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12.29	北, 당·국가 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 개최(연합뉴스) 北총리 “경제 모든 부문서 내년 목표 무조건 수행해야”(연합뉴스)	
	12.30	北김정은, 당 세포위원장들과 공연 관람…김여정 참석(연합뉴스)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에 “반미대결 최후승리 의지확고”(연합뉴스)	
	12.31	“北 황병서 처벌은 뇌물문제·최룡해와 대립 결과”(연합뉴스) 北신문 “국력 과시한 대승리의 해 2017년” 주장(연합뉴스)	
	1.1	김정은, 조선총련에 새해 축전…“日탄압속 조선인운동 진전이뵈”(연합뉴스) 北고위간부들, 새해 첫날 금수산궁전 참배…김여정 참석(연합뉴스) 北김정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용의…남북 당국 만날수도”(연합뉴스) 北 신년사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강조…“체제결속 치원”(연합뉴스)	
	1.3	김정은,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지시…北 “평창과건 실무 논의”(연합뉴스)	
	1.4	北대남관계자, 신년사 후 연일 ‘민족화해·관계개선’ 주장(연합뉴스)	
	군사	12.30	“북한, 3차핵실험 뒤인 2013년 3월 ‘준전시작전계획’ 만들었다”(연합뉴스)
		12.31	“김정은, 새 장거리탄도미사일 은하4호 발사 준비 지시”(연합뉴스)
		1.4	“작년 4월 북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인근 도시에 추락”(연합뉴스)
	경제	12.29.	“北 석탄 취급 항구들, 바다 드러낼 정도로 한산”(연합뉴스)
1.1		“외화벌이 침병 북 노동자 450명, 여전히 폴란드서 일해”(연합뉴스)	
사회 문화	1.1	北, 대규모 불꽃놀이로 무술년 새해맞이(연합뉴스) 北,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일성·김정일 채색 조각상 설치(연합뉴스)	
	1.2	북한에서도 ‘폭탄주’ 확산?...공식 매체서 건강주의 당부(연합뉴스)	
	1.4	교도 “고려항공,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주 3회→2회로 줄어”(연합뉴스) 北, 평양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다짐 군중대회(연합뉴스)	
	외교 국방	12.29	“英, 北 개인 16명·기관 1곳 금융제재대상에 추가”(연합뉴스)
12.30		“대북 농업지원 美구호단체 관계자, 지난달 방북”(연합뉴스) “러시아도 바다에서 최소 3차례 몰래 북한에 석유공급”(연합뉴스)	
12.31.		北김정은, 라울 카스트로에 쿠바혁명 기념 축전(연합뉴스)	
1.1		北, ‘김정은에 연하장’ 올해도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 호명(연합뉴스)	
1.2		IOC “北 평창 참가 위해 한국 정부·북한 NOC와 공조”(연합뉴스)	

1.3	헤일리 “북 미사일 발사준비 보도들어…발사시 강경조치”(연합뉴스)
	백악관 “비핵화·최대압박 변함없어, 한국과 긴밀한 연락”(연합뉴스)
	北통신 “한반도 초긴장 상태…美의 적대시정책이 근원”(연합뉴스)
1.4	美國무부 “남북관계, 북핵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어”(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 ‘핵버튼’ 트윗 옹호…“김정은 정신상태 걱정해야”(연합뉴스)
1.5	IOC “평창 참가 관련 남북 직접대화 의사 환영”(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2. 30.

■ 北김정은, 당 세포위원장들과 공연 관람…김여정 참석(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와 강습, 참관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 초소로 떠나는 당 세포위원장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식에 나오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박광호 동지, 김평해 동지, 태종수 동지, 오수용 동지, 안정수 동지, 박태성 동지, 최휘 동지, 박태덕 동지,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일꾼들이 공연을 보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당 부위원장들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나란히 열거하면서 ‘당 책임일꾼’으로 호칭한 것으로, 김여정의 높은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2018. 1. 1.

■ 김정은, 조선총련에 새해 축전…“日탄압속 조선인운동 진전이뵈”(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총련은 작년 일본의 악랄한 탄압책동 속에서도 재일 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투쟁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
- 이어 “새해는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는 해”라며 “총련의 본태(본래 모습)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언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2. 31.

■ “北 황병서 처벌은 뇌물문제·최룡해와 대립 결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한 처벌은

군 간부들의 뇌물 수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대립 등이 이유였다고 도쿄 신문이 31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황 국장이 검열 이후 기존의 인민군 차수에서 크게 강등됐으며, 황 국장의 처벌은 첫째 군 간부들이 뇌물을 사용해 퇴역 후 우대 등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는 행위가 횡행한 점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고 전달함.

2018. 1. 1.

■ 北고위간부들, 새해 첫날 금수산궁전 참배··김여정 참석(연합뉴스)

-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새해 첫날인 1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 자리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부처), 중앙기관 일꾼들이 참석했으며, 통신이 배포한 사진에서는 맨 앞줄 가운데에 김영남과 박봉주가 서 있고, 양옆으로 박태덕·최휘·김평해·양형섭·태종수·안정수 노동당 부위원장,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남.
-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둘째 줄에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 리만건 전 당 부위원장, 임철웅·김덕훈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검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2. 29.

■ 北,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 개최(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2017년 사업을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2017년 사업 정형 총화를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라며 “연석회의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과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17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이 분석·총화되었다”고 전함.
- 연석회의에는 박 총리 외에 박영식 인민무력상, 오수용·안정수·최휘·박태덕 노동

당 부위원장, 노두철 내각 부총리, 리만건 전 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 통신은 언급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2. 29.

■ 北총리 “경제 모든 부문서 내년 목표 무조건 수행해야”(연합뉴스)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년도 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밝힘.
- 박봉주는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여 다음 해 전투목표를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며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박봉주는 또한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이 오늘의 대고조 진군은 미제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며 대고조 진군의 승패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의 혁명적 대응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소개함.

2017. 12. 30.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에 “반미대결 최후승리 의지확고”(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을 맞아 ‘주체강국의 존엄을 빛내어 가시는 강철의 영장’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의 백승의 영도를 받들어 반미 대결전에서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힘.
- 신문은 “오늘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핵공갈 책동은 최악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수들은 그 어떤 제재 봉쇄와 군사적 위협 공갈로도 우리를 절대로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함.

2017. 12. 31.

■ **北신문 “국력 과시한 대승리의 해 2017년” 주장(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대승리의 해 2017년’이라는 대제목을 달고 2면과 3면에 걸쳐 올해 군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주장하는 글과 사진을 보도함.
- 신문은 “(올해) 내 조국은 ‘7·4 혁명’(‘화성-14’ 미사일 1차 시험발사), 7·28의 기적적 승리(‘화성-14’ 2차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에 이어 ‘11월 대사변’(‘화성-15’ 미사일 시험발사)을 맞이하였고 누구도 감히 범접 못 할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더욱 우뚝 솟구쳐올라 우주에 닿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남김없이 떨쳤다”고 주장함.
- 특히 신문은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봉쇄가 살인적인 것이라고 평하고, 적들도 가장 혹독한 제재·봉쇄라고 자인할 정도로 최악의 역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조국은 이렇게 민족사적 대승리들을 연이어 거두면서도 경제 강국 건설에서 놀라운 비약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함.

2018. 1. 1.

■ **北김정은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동의…남북 당국 만날수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2018년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며 “그것(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함.
 - 그는 국방공업 분야 과업으로도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언급함.

■ **北 신년사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강조…“체제결속 차원”(연합뉴스)**

- 북한이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며 대내적으로 체제결속 강화에 집중함.
- 김 위원장은 이날 “전 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 모든 사람이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품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며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힘으로 부르주아 반동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하겠다”고 자본주의 문화 침투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냄.

2018. 1. 3.

■ **김정은,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지시…北 “평창파견 실무 논의”(연합뉴스)**

-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3일 오후 3시30분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도 (김 위원장이) 주셨다”고 언급함.
- 그러나 리 위원장은 전날 남측이 제의한 고위급회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2018. 1. 4.

■ **北대남관계자, 신년사 후 연일 ‘민족화해·관계개선’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관 관계자들이 대남 유화메시지를 던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소속 한광일은 4일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영도자 동지의 신년사에 담긴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 또다른 대남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최길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의 강정식은 “절세위인의 통일 의지를 한몸 바쳐 받들어나가겠다”고 언급함.
- 우리민족끼리는 전날에도 북측 민화협 소속 김철국, 조평통 소속 김지예 등이 이른바 ‘대남일꾼’들의 신년사에 대한 반향을 잇따라 소개했는데, 김철국은 “신년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에서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고, 김지예는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합친다면 북남관계 개선, 조국통일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2. 30.

■ **“북한, 3차핵실험 뒤인 2013년 3월 ‘준전시작전계획’ 만들었다”(연합뉴스)**

- 북한의 치안조직인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이 2013년 3월에 ‘전시상태’ 다음인 ‘준전시상태’에 대비한 ‘준전시작전계획’을 작성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중국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함.
- 신문은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에서 이를 확인했다면서 “작전계획은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지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작성됐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내부 문서는 평양과 인접한 황해남도의 군(郡)인민보안서가 작성

한 극비 자료로, 상부 기관인 도(道)인민보안국 국장이 승인하였으며, 보안서의 임무로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 중앙위원회 사수를 첫번째로 제시하고, ‘적’의 공습을 격퇴하고 인민군과 협력해 적의 특수부대와 스파이에 의한 파괴공작, ‘불순적대분자’를 철저히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김정은 동지 결사 옹호 사업’ 항목에서는 파괴공작분자의 목표가 될수 있는 중요도로, 철도, 중요지역을 현지조사해 호위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안조직의 최하부 조직인 분주소(우리의 파출소)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자나 ‘유사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자’를 철저히 파악해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위험대상자에 대해서는 원격지로 추방하라는 내용도 있었음.

2017. 12. 31.

■ “김정은, 새 장거리탄도미사일 은하4호 발사 준비 지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란 이름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준비를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분야를 잘 아는 탈북자를 인용해 “이런 지시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평양에서 열린 군수공업대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내려졌다”고 소개함.
- 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은 2012년 12월과 지난해 2월 발사했던 3단식 장거리미사일 대포동2호 개량형인 은하 3호를 더 대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북한은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을 은하 4호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짐.

2018. 1. 4.

■ “작년 4월 북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인근 도시에 추락”(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4월 29일 평안남도 북창에서 시험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KN-17)이 인근 도시에 떨어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매트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발사 거의 1분 만에 1단 엔진 실패로 고도 70km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평남 덕천 시에 떨어졌고, 산업 농업 단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 4월과 5월 상업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됐다고 디플로 매트는 전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12. 29.

- “北 석탄 취급 항구들, 바닥 드러낼 정도로 한산”(연합뉴스)
 - 북한의 남포항을 비롯한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들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한산한 상황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는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Planet)을 통해 북한의 남포·대안·송림항의 지난 1년 사이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야적된 석탄 더미는 현재 사실상 사라졌고, 설새 없이 드러나던 선박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달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방송은 추정함.

2018. 1. 1.

- “‘외화벌이’ 침병 북 노동자 450명, 여전히 폴란드서 일해”(연합뉴스)
 -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 파견돼 있다고 보도함.
 - 이들은 주로 벌목과 채광,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으며, 월급의 30~80%가 북한 노동당으로 보내진다고 NYT는 설명함.
 -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폴란드 내 19개 이상의 기업이 여전히 450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중인데, NYT는 독일과의 국경 근처 조선소와 칠루호프 시내에

있는 선적컨테이너 회사 등 알려진 곳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지적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1. 1.

- 北, 대규모 불꽃놀이로 무술년 새해맞이(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일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꽃놀이를 생중계함.
 - 대동강 건너편 김일성광장 및 대동강 위에 떠 있는 유람선에도 불꽃놀이 관람객으로 빼곡했는데, 주민들이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행사를 촬영하는 장면 및 '셀카봉'도 목격됨.
 - 불꽃놀이 생중계는 약 15분간 진행됐으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당·정·군 주요 인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중앙TV가 따로 참석자를 호명하지도 않았음.
- 北,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일성·김정일 채색 조각상 설치(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색 조각상’을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혁명박물관 총서관에 정중히 모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색 조각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꽃바구니가 진정됐다고 밝힘.
- 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평해·최취 당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장 등이 참가함.

2018. 1. 2.

■ 북한에서도 ‘폭탄주’ 확산?...공식 매체서 건강주의 당부(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날씨를 예보하면서 “겨울철에는 인체의 체온 조절을 위한 열 에너르기(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므로 사람들 속에서 식사 섭생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알코올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술(소주)과 맥주를 섞어 마시면 체온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간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술은 주로 저녁경에 알코올양으로 8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술과 맥주는 따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함.
- 평양 출신의 한 탈북민은 “내가 북한을 떠나던 2000년대 후반까지도 일반 주민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법을 몰랐다”라며 “북한 주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라디오에서 경고할 정도라면 최근 들어 폭탄주 문화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산했다는 의미”라고 추측함.

2018. 1. 4.

■ 교도 “고려항공,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주 3회→2회로 줄여”(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주 3회 운항하던 평양과 중국 베이징(北京)간 직항편을 이달부터 주 2회로 줄였다고 교도통신이 4일 중국 베이징 발로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오는 2월까지의 주 2회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겨울철에는 관광객 등 여객 수요가 적은 데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항공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北, 평양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다짐 군중대회(연합뉴스)**

- 북한이 4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신년사 내용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가 보도함.
- 김수길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당위원장은 대회 보고에서 “최후 발악하는 적대 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수며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 인민적인 투쟁에 힘있게 떨쳐 나셔야 하겠다”고 언급함.
- 대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광호·오수용·안정수·최휘 당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2. 30.

■ **“대북 농업지원 美구호단체 관계자, 지난달 방북”(연합뉴스)**

- 북한에 농업기술 지원을 하는 미국 구호단체가 지난달 방북해 추수 현황 등을 살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미국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대니얼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중국 랴오닝 성 다롄(大連) 사무소에서 북한 지원을 전담하는 린다 루이스 박사가 지난달 평안남도의 협력 농장에서 추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고 전함.
- 루이스 소장은 단체의 북한 담당자가 방북한 것은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령 이후 처음이라며 “협동농장들과 협력대학과의 공동 연구 사업을 점검했다”고 언급함.

2018. 1. 3.

■ **헤일리 “북 미사일 발사준비 보도들어…발사시 강경조치”(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그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응해 더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백악관 “비핵화·최대압박 변함없어, 한국과 긴밀한 연락”(연합뉴스)

-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대해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양국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급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함.
-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변함.

■ 北통신 “한반도 초긴장 상태…美의 적대시정책이 근원”(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긴장 격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거론함.
- 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열 핵전쟁으로 번져질지 알 수 없는 초긴장 상태”라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긴장 격화 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변함.

2018. 1. 4.

■ 美국무부 “남북관계, 북핵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남북간 관문점 연락채널이 재개된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한 채 한미 간 일치된 대북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거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관문점 연락채널 재개를 환영하느냐는 RF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자세한 상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또 ‘남북 간 대화통로 복원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힘.

■ 백악관, 트럼프 ‘핵버튼’ 트윗 옹호…“김정은 정신상태 걱정해야”(연합뉴스)

-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라 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과 이 나라 국민은 북한 지도자의 정신건강을 걱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샌더스 대변인은 “그는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수년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여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며, 약속을 이행하고 미국인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밝힘.
-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그(김정은)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식량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겠느냐”며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작성함.

나. 북·중 관계

2018. 1. 1.

■ 北, ‘김정은에 연하장’ 올해도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 호명(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동지께 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어왔다”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러시아 연방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등의 순으로 이름 없이 직책만 언급했으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이로써 북한은 각국 지도자가 연하장을 보내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을 포함해 4년 연속 중국을 러시아 뒤에 호명했는데,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과 이후 북핵 문제로 북·중 관계는 소원해진 반면, 북·러 관계는 각종 교류를 통해 가까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2. 30.

■ “러시아도 바다에서 최소 3차례 몰래 북한에 석유공급”(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0~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換積)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나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함.
- 한 당국자는 “올해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넘겨줬다”면서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에서 러시아 연료를 밀반출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당국자도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생명선(lifeline)을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 간 석유 거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런 거래 과정에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임.
- 두 당국자는 해군 정보와 러시아 극동 항구 일대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포착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2. 29.

■ “英, 北 개인 16명·기관 1곳 금융제재대상에 추가”(연합뉴스)

- 영국 재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개인 16명과 기관 1곳 등을 대북 금융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RFA에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2397호를 제재 목록에 반영하기에 앞서 영국 정부가 신속히 임시 제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함.

2017. 12. 31.

■ 北김정은, 라울 카스트로에 쿠바혁명 기념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1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쿠바혁명 59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쿠바혁명승리 59돌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쿠바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변함없이 공고·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아울러 쿠바 당과 정부, 인민을 영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함.

2018. 1. 2.

■ IOC “北 평창 참가 위해 한국 정부·북한 NOC와 공조”(연합뉴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파견을 시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환영함.
-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2일(한국시간) 올림픽 관련 뉴스를 다루는 매체 인사 이드더게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한국 정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발언을 열린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8. 1. 5.

■ IOC “평창 참가 관련 남북 직접대화 의사 환영”(연합뉴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IOC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IOC는 북한 선수들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남북한의 상호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VOA는 전함.
- 그는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와 논의를 지속한다면 올림픽 현장에 따라 그런(북한의)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 북한 NOC 대표단에 대한 초청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3		미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 북 이간질 시도해도 안통할 것” (연합뉴스)
			그레이엄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하면 미 안갈 것으로 믿어” (연합뉴스)
	1.4	통일부 “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 통미 이뤄지게 노력”(연합뉴스)	
	1.5	강경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함께 추진”(연합뉴스)	
			미 국방 “평창 패럴림픽 이후에 한미훈련 재개”(연합뉴스) 미 국무부 “누구도 이간질 못 해...한·미, 긴밀한 대화·협의중”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4	외교부 “정부, ‘쌍중단’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4	강경화, 위안부합의 “모든것 가능 하나 결과도 충분히 생각해야” (연합뉴스)	
		한미·한일 북핵 6자수석 연쇄통화...“北신년사 이후 대응 협의” (연합뉴스)	
			일본 정부, 文대통령 ‘위안부합의 사과’에 “변경 수용못해” 항의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30	“일본, 한국·중국에 4월중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타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2.31	시진핑·푸틴, 어김없이 새해 축전 교환...내년도 '밀월' 예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1. 3.

■ 미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북 이간질 시도해도 안통할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빠르게 전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 모드'에 촉각을 세우며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대북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업무 개시일인 2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의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 등 대화 제안을 두고 "로켓맨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고 언급함.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새해 첫 업무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고위급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평가는 피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며 반드시 한반도를 비핵화할 것"이며 "한미양국은 통일된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양국은 궁극적인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할 것"이라며 공조를 강조함.

■ 그레이엄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하면 미 안갈 것으로 믿어”(연합뉴스)

- 미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의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구 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분석함.

■ 통일부 “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통미 이뤄지게 노력”(연합뉴스)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공조는 중요하며

한미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통미'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백 대변인은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간에 포함된 설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문제는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어제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당국회담에 북한 측이 호응해 온다면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2018. 1. 4.

■ 강경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함께 추진”(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함.
-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접견에서 내퍼 대사대리와 브룩스 사령관의 협조 하에 지난해 한미 정상외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 및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함.
- 강 장관은 또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도 한미가 협의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함.

2018. 1. 5.

■ 미 국방 “평창 패럴림픽 이후에 한미훈련 재개”(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오는 3월 9~18일로 예정된 평창 패럴림픽이 폐막한 이후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힘.
- 그는 또 이번 군사 훈련 연기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끔 (훈련) 일정을 많은 이유로 바꾼다"고 말함.
- 이와 함께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대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며,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것이 진짜 '화해의

손짓(olive branch)'인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함.

■ 미 국무부 “누구도 이간질 못해…한·미, 긴밀한 대화·협약중”(연합뉴스)

- 헤더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새해 들어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미국이 주도해온 최대의 압박작전이 효과를 거두는 증거라고 주장함.
- 노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사람들이 가까이 수화기를 들고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압박작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는 이 압박작전이 실제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해온 돈을 쥐어짜고 있다는 증거와 정보가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 압박작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함.
- 또 "미국이 이끌고 다른 많은 나라가 일원이 된 그 최대의 압박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남북 간) 전화통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2018. 1. 4.

■ 외교부 “정부, ‘쌍중단’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연합뉴스)

- 외교부는 4일 북한 문제 해법과 관련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대화를 계기로 쌍중단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외교부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리 정부는 그 입장(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군당국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고위급 대화 제안에 미국 쪽에서 부정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북한문제 관련해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답변함.

다. 한·일 관계

2018. 1. 4.

■ 강경화, 위안부합의 “모든것 가능하나 결과도 충분히 생각해야”(연합뉴스)

- 강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려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함.
-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일본은 끈질기게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가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강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 파기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강조함.

■ 한미·한일 북핵 6자수석 연쇄통화…“北신년사 이후 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과 일본 측 6자 수석과 잇따라 전화협의를 갖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대응 방향, 향후 협의 추진 계획 등 논의차 지난 2일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진데 이어 4일에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를 가졌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 일 등 관련국과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수시 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간 통화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임.

■ 일본 정부, 文대통령 '위안부합의 사과'에 “변경 수용못해” 항의(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4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변경 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NHK가 전함.
-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일 합의는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전한 뒤 이날 오후 서울 소재 일본대사관의 차석공사가 한국 외교부의 국장에게 이같이

항의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의 차석공사는 "한일 양국 정부에 있어 합의의 착실한 실시야말로 중요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는 관리 불능이 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중·일 관계

2017. 12. 30.

- “일본, 한국·중국에 4월중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으로 4월 4~6일과 같은달 9~11일 등 2가지 안을 한국과 일본에 제시, 이에 대해 한국은 '(일정을) 조절하겠다'고 답했고 중국 측은 회답을 보류함.

마. 중·러 관계

2017. 12. 31.

■ 시진핑·푸틴, 어김없이 새해 축전 교환…내년도 ‘밀월’ 예고(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 밀월관계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임을 예고함.
-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발송한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에도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 중러 간 정치적·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함.
- 시 주석은 "양국 간 전방위적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전략 협력 추진과 양국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5	美 국무부, 북한 등 '중고자유특별우려국' 재지정(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4	北, 주민들에 반중감정 고취(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1.2	지난해 미국 입국 탈북난민 1명뿐...가장 적어(연합뉴스)
남북자 국군포로	1.5	작년 입국 탈북민 1천127명...김정은 집권후 가장 적어(연합뉴스)
대북지원	1.2	獨 카리타스, 北 노인복지·온실사업 확대 추진 계획(자유아시아방송)
	1.3	WFP 식량지원 받는 북 주민 한 달새 27만 명 줄어(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1. 5.

■미 국무부, 북한 등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재지정(미국의소리)

- 북한이 또 다시 미 국무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됨.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 연속임.
- 미 국무부가 4일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힘.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박해를 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해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티러슨 장관이 지난 해 12월 22일 자로 북한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함.
- 이번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재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1. 4.

■북, 주민들에 반중감정 고취(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반중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국의 배신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민교양을 실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이 주민들에게 반중정서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현지 소식통들로부터 제기됨. 중국의 대북제재로 생활난이 가중되면서 중앙당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모든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일 “지난 12월 중앙의 지시로 열린 청진시의 동단위 여맹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면서 “연단에 오른

송평구역의 여맹 간부가 일본은 백년 숙적,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발언해 참석자들이 술렁였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청진사에서 구역별 여맹 회의에 이어진 주기별 학습시간을 이용해 국내외 정세강연이 있었다”면서 “연단에 나선 여맹간부가 현재의 국내외 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여과없이 전달됐다”고 지적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1. 2.

■ 지난해 미국 입국 탈북난민 1명뿐...가장 적어(연합뉴스)

-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명뿐이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VOA는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현지시간)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면서 이같이 전함.
-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난민의 미국 입국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임.
-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 수는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7년 28명, 2013년 23명으로 뒤를 이음.
- 그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VOA는 지적함. 특히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단 한 명의 탈북민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함.

2018. 1. 5.

■ 작년 입국 탈북민 1천127명...김정은 집권후 가장 적어(연합뉴스)

-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이 1천127명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됨.

-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은 남성 189명, 여성 938명으로 총 1천127명이었음.
- 이는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임.
- 탈북민 감소는 김정은 체제하의 통제 강화 때문으로 분석됨. 김 위원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 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 탈북민 중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음. 작년 탈북민 중 여성 비율은 83%였으며, 작년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총 3만1천339명 중 여성은 2만2천345명으로 71%에 달함.

5. 대북지원

2018. 1. 2.

■獨 카리타스, 북 노인복지·온실사업 확대 추진 계획(자유아시아방송)

- 국제단체 독일 카리타스가 2018년도 계획을 내놓음. 카리타스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해 말 북한의 보건성과 새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힘.
-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노인복지와 온실건설 부문임.
- 카리타스 관계자들은 올해 새로 지을 노인건강센터 건설부지 점검을 위해 지난해 신의주를 방문했다고 덧붙임.
- 양로원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공사는 올 봄에 시작할 예정임. 카리타스는 지난 해 여름 함경남도 함흥시와 고원군 두 곳에서 양로원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2018. 1. 3.

■WFP 식량지원 받는 북 주민 한 달새 27만 명 줄어(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한 달 사이에 3분의 1가량 줄어듦. 자연재해 복구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보임.
-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난 11월 북한 취약계층 약 56만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한 달 전인 10월의 약 83만 명에 비해 33%가 줄어듦.
- 버 대변인은 74개 군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과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서 가뭄 피해 지역 주민에게도 식량지원을 이어갔다고 덧붙임.

- 버 대변인은 가장 최근 집계된 대북지원 통계인 지난 11월 북한 주민에 1천 668톤의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밝힘.